

# 클라우드와 만난 AI, 언택트에 딱이네... 'AlaaS' 각광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AI)

AIaaS시장 2023년 13조원 예측  
솔트룩스·와이즈넷·아크릴 등  
AI 기업,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  
AI 구현 난이도 낮춰 확산 전망

기존에는 인공지능(AI) 개발도구의 시스템구축(SI) 방식 공급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AIaaS(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AI)가 잇따라 등장해 시장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와이즈넷·솔트룩스·아크릴·마인즈랩 등 대표 AI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업과 손잡고 AI 플랫폼, 챗봇 등 AI 서비스 개발도구를 제공하는 AlaaS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AIaaS 시장은 2018년 기준 1조820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3년에는 1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IaaS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를 필두로 국내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AI 전문조직과 IT 인



와이즈넷이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챗봇 브랜드 '현명한 앤써니(WISE Answerly)' 홈페이지. /와이즈넷

프자가 부족한 기업이 상당수여서 AI 기술 도입·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IaaS 서비스는 AI 구현 난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솔트룩스는 무료 AI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제공 및 유료 서비스인 고급, 커스텀, 온디맨드(수요에 맞는 맞춤형 제공) 개발 지원이 더해진 통합 매니지먼트인 3세대 AI 플랫폼 서비스 AIaaS를 다음 달 베타 서비스로 공개한다.

AI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무료

와 유료로 나뉜다. 무료 서비스는 6개 영역, 42개 서비스로 일상 속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API를 제공한다. AI 구현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AI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또 유료 서비스 중 커스텀은 고객의 학습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AI API를 생성해주며, 온디맨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개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문형 옵션으로 서비스를 다각화했다.

와이즈넷은 초기에는 구축형 챗봇인

'와이즈 아이챗'을 제공해 왔지만 최근 고객이 비즈니스 환경·운영인력·예산 및 활용 목적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 '현명한 앤써니'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현명한 앤써니는 기계학, 의도분석, 검색기술 등 구축형 챗봇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AI 챗봇 기획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현상으로 비대면 챗봇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어 와이즈넷의 서비스형 플랫폼도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교 등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 대학교에 집중 도입되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챗봇, 아주대학교 새봇, 인천대학교 입학챗봇, 경상대학교 등에 AIaa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아크릴은 소프트웨어적 환경설정의 간편성, 운영 효율성 등으로 AIaaS가 향후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만간 AIaaS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크릴은 독자 개발한 AI 플랫폼 '조

나단'을 AI 기술 도입 및 서비스 구축을 원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맞춤형 AIaaS 형태로 보급하기로 했다. 조나단은 개발 전주기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으로, AI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준비까지 고속 학습과 배포를 쉽게 진행하도록 돕는다.

특히 값비싼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리를 통한 운영과 계속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한 재학습 및 피드백 분석,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인즈랩은 음성·언어·시각·대화·챗봇 엔진 등 AI 플랫폼의 개발도구를 제공하는 Ala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음 AI'를 통해 시각, 음성, 언어 등 핵심 엔진을 API로 끌어다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월 9만9000원에 제공해 이미 10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

또 음성, 영상 데이터 파일을 텍스트로 바꿔줘 클라우드 상에서 회의록을 보관할 수 있는 '마음 회의록'도 서비스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 부담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레고처럼 조립'... LG 차세대 LED 사이니지

강당·회의실 등 공간 맞춰 설치 용이  
세계최초 비접촉식 커넥터기술 적용

LG전자 사이니지가 화질과 설치 편의까지 업그레이드됐다.

LG전자는 'LGLED 사이니지' 신제품(모델명: LSAA)을 22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LG LED 사이니지 신제품은 가로 600mm, 세로 337.5mm, 두께 44.9mm다. LED 캐비닛(LED 소자가 박힌 LED 사이니지의 기본 구성 단위)을 레고 블록처럼 간편하게 이어 붙일 수 있어 대강당, 로비, 회의실 등 다양한 상업용 공간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는 LGLED 사이니지 신제품은 LED 캐비닛 간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어 붙이기만 하면 원하는 크기로 설치할 수 있게 만들



LG전자 신형 LED 사이니지.

/LG전자

었다. LED 캐비닛을 원하는 크기에 맞춰 설치한 후 맨 아래 LED 캐비닛에만 신호 송·수신 및 전원 공급 케이블을 각각 연결하면 최대 16대 9 비율의 4K 해상도 화면까지 구현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LED 사이니지에 비접촉식 커넥터 기술을 적용했다. 인접한

LED 캐비닛 간 무선으로 신호를 원활하게 주고 받고, LED 캐비닛 접착면에 부착된 핀 단자를 서로 걸속하는 도킹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대화면을 구성하면서도 케이블 연결 작업이 없어 설치가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현대로템, GTX-A노선 전동차 추가 수주

신규 40량 포함 총 160량 모두 마나

현대로템이 GTX-A노선에 투입될 전동차를 추가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차량 40량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업 금액은 1192억원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 수주로 지난 3월 120량 수주에 이어 GTX-A노선 전동차 160량 모두를 제작한다. 창원공장에서 제작될 신규 40량은 과주시 운정역~화성시 동탄역의 10개 역사 83.1km 구간에 투입된다. GTX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지하 40m 이하 공간에 선로를 구축해 노선을 직선화해 기존 지하철보다 빠르게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까지 모든 차량이 발주가

완료된 A노선에 이어 향후 B, C 등 다른 GTX 노선 차량들도 발주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국내외 다양한 광역철도차량 납품 사업을 수주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GTX 전동차 추가 수주 확보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GTX-A노선 전동차 40량은 8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최고운행속도는 180km/h, 편성당 승객정원 1090명으로 앞서 발주된 120량과 사양이 동일하다.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빠른 GTX-A노선 전동차의 특성상 KTX, SRT 등 고속열차에 사용되는 두꺼운 단문형 출입문을 적용해 소음 차단 수준을 고속열차급으로 확보하며 지하 터널과 승강장 사이에서 차량이 오갈 때 발생하는 압력파로 귀가 멍멍해지는 이명감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 벽면 보강재를 강화한다.

/양성운 기자 ysw@

## "온라인 한국상품전으로 日 수출 돌파"

코트라, 2주간 대규모 행사 진행

KOTRA(코트라)가 일본 수출 돌파를 찾기 위해 22일부터 2주간 대규모 온라인 한국상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 상담에는 중소·중견기업 149개사가 참가한다.

올해 일본 수출은 1분기까지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4, 5월에는 -12.6%, -28.8%를 각각 기록하며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트라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일본 바이어 전용 전시

관을 구축했다.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화상상담, 샘플발송비 지원과 같은 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

전시품목은 일본 수출 유망분야로 엄선했다. 실내 레저용품, 마스크팩, 유아·생활용품 등 소비자 외에도 디지털 전환 수혜분야인 ICT 상품·서비스를 전시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소재·부품·장비 제품도 전시한다.

코트라는 일본시장이 상이한 유통구조와 보수적 성향으로 초기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본시장 진출전략 웹세미나'도 진행한다. 일본 현지 유



전시회와 연계해 진행된 '일본시장 진출전략 웹세미나'에서 일본 현지 연사가 발언하고 있다.

통·비즈니스 전문가가 나서 시장특성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 코트라는 무역관별로 담당 국내기업을 지정해 일본시장 진출 멘토링도 실시한다.

/양성운 기자

## 한화시스템 AI 기반 '군집 무인수상정' 개발 착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이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로 국내 최초 개발된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한화시스템(주)·KAIST·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동국대 등 산학연관이 참여, 2024년까지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19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올해 3월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추진법에 따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민간 기술역량의 국방 R&D 접목을 위해 시행하는 올해 첫 미

래도전국방기술사업이다. 우리해군이 첨단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네이비' 미래 전략에 따라 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변화와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개발사업에서 군집 통신 네트워크 및 AI 알고리즘 시연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한다. 다양한 해양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무인수상정 AI 플랫폼과 원격통제장비 구축을 통해, 해상 환경을 고려한 실제적인 AI 운용 알고리즘 시연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